



컴퓨터 속의 한글 이야기 (첫째 보따리)

김 경석

영진 출판사, 1995.03.

<http://asadal.pusan.ac.kr/~gimsg0/book/hgiyagi1.html>

제 8 장

한글 점자는 두벌식이 아니라 세벌식이다

한글 점자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어야 하기 때문에 가로로 풀어 쓴다. 그런데 한글 점자가 풀어 쓴다고 해서 한글 가로 풀어 쓰기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1900년대초 주 시경 선생부터 시작한 한글 가로 풀어 쓰기는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를 같이 다루는 두벌식(닿소리 글자 한 벌과 홀소리 글자 한 벌 해서 모두 두 벌) 풀어 쓰기이다. 보기를 들어 "각" 을 두벌식 풀어 쓰기로 나타내면 "ㄱㅏㄱ" 이라고 하기 때문에 두 "ㄱ" 이 꼭 같이 나타난다.

그런데 한글 점자를 만든 박 인환은 처음에는 두벌식 한글 점자 시안을 만들어 시험해 보았더니, 사람들이 손으로 읽으면서 소리마디의 경계를 잘 찾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세벌식(첫소리 글자, 가운뎃소리 글자, 그리고 끝소리 글자 각 한 벌씩, 모두 세 벌) 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 한글 점자 개발에 성공했다고 한다. 아래 그림 8-1에 나오는 한글 점자 표를 보면 세벌식인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보기를 들어 세벌식에서는 "각" 이라는 소리 마디의 첫소리 글자 "ㄱ" 과 끝소리 글자 (받침) "ㄱ" 이 다르게 나타난다.

글쓴이는 여기서 박 인환이 한글 점자를 세벌식으로 한 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또는 두벌식으로 더 간단하고 낮게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게 결코 아니다.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의 한글 점자는 세벌식" 이며, 따라서 두벌식 한글 가로 풀어 쓰기가 성공한 보기로 한글 점자를 들 수 없다는 것이다. 도리어 한글 점자는 두벌식 풀어 쓰기가 나쁘다는 (또는 비실용적이라는) 주장의 논거가 되며, 따라서 한글 점자의 개발에 국한해서 생각하면 모아 쓰든지, 굳이 풀어 쓰려면 세벌식으로 풀어 써야 한다는 결론은 낼 수 있다. (그렇지만 세벌식으로 한글을 풀어 쓰자는 주장은 아직 없는 듯 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한글 점자를 한글 가로 풀어 쓰기의 성공적인 보기로 든다면, 이는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시키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글 점자는 세벌식이며, 따라서 두벌식 한글 가로 풀어 쓰기의 성공적인 보기가기는커녕, 도리어 한글 가로 풀어 쓰기를 반박하고 한글 모아 쓰기를 뒷받침한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판단이라고 본다.

(1989.7.16. 씀; 1994.9.21. 고쳐 씀; 2021.12.02. 다시 고쳐 씀)

1) 첫소리 글자 (참고. 첫소리 글자 이응은 점자로 적지 않는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가운뎃소리 글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ㅙ	ㅚ	ㅜ	ㅠ	ㅓ	ㅕ	ㅗ	ㅠ	ㅜ	ㅠ	ㅑ	ㅓ	ㅕ	ㅗ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끝소리 글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림 8-1. 한글 점자표

- 보기를 들어 첫소리 글자 기억과 끝소리 글자 기억의 점자가 다르다.